

저작권은 <http://www.hangeulstudy.com> 다목적 글소리 샘 장덕진에게 있음

3. 독후감 그리기

슬기롭다는 건

-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 중에서-

슬기롭다는 건
잘 난 체를 위함이 아냐.

슬기롭다는 건
남을
속이기 위함이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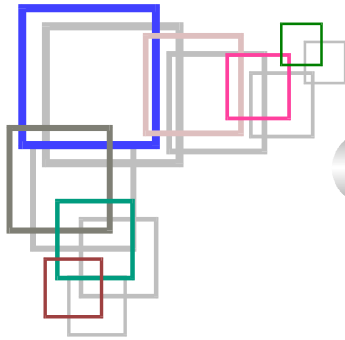
슬기롭다는 건
어머니 품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거야!

슬기롭다는 건
꽃 보듯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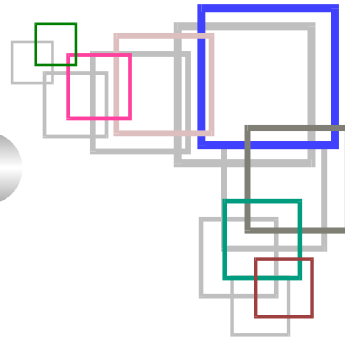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안 하듯

우리도
세상을
속이지 않으면
우리는
슬기로운 거야!





책 속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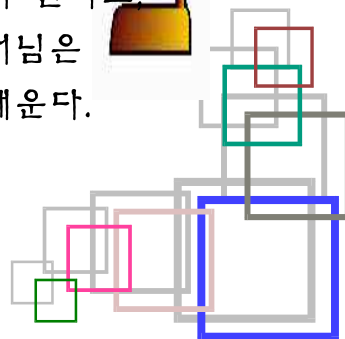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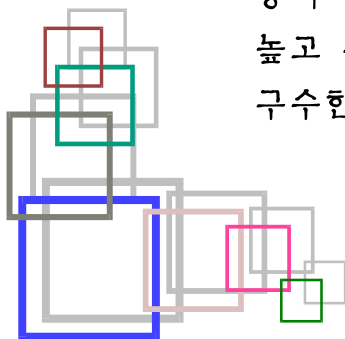
즐거운 소풍 가듯
웃음 피는 얼굴로 나들이 간다,
책 속의 나라로.

옛 이야기 가득한 동화 속의 나라
슬기로움 가득한 위인들의 나라

한장한장 넘고 넘어 하얀 눈밭을,
한줄한줄 재 넘어 까만 글밭을,

발자국 따라 글줄 타고
새겨둔 말씀을 읽어가면은

동화 속의 친구들 손 흔들며 반기고,
높고 푸른 말씀 위인 할아버님은
구수한 이야기로 긴 밤을 깨운다.



1. 독후감 쓰는 요령

제목 짓기

- (1) 글의 주제나 글 전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창의적으로 제목을 붙인다.

예) ○한글을 펴내신 어진 세종
○눈병까지 앓으시며 우리
글을 펴내신 어진 임금
○세종대왕이 아니었다면 어
찌 이 우수한 한글을…….

☞ 제목 : 어진 임금 또는
독창적인 우리글

길잡이

글을 짓기 전에 제목을 붙여 보고, 글을 지은 후에 다시 고쳐 보자.

글의 처음

- (1)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말한다.

아버지께서 저녁 퇴근길에 두툼한 책 봉치를 들고 오셨습니

다. 얼른 받아 들고 보니, 우리나라 전래 동화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그 날 밤늦게까지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토끼전’이었습니다.

☞ 동기 : 우연한 아버지의 선물

- (2) 책의 내용과 지은이를 소개 한다.

이 책은 ○○○ 선생님께서 지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두고 온 북녘 땅의 가족과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 책의 내용 : 두고 온 북녘 땅의 가족과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 지은이 : ○○○ 선생님

길잡이

글의 처음은 쓰는 이나 읽는 이의 호기심이 읽게 된 이유로 충분하다면 어떻게 시작되어도 좋다.



글의 가운데

- (1) 줄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상깊은 줄거리 내용을 느낌이나 생각을 고루 섞어 나타낸다.

마침내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만난 너구리가 토끼에게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네 분수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였는데도 듣지 않고, 토끼는 자라 등에 타고 용궁에 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남이 슬쩍 추겨주기만 하면 분수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재주꾼이라는 토끼가 꼭 그런 거 같습니다.

- ☞ 토끼를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견주어 느낌과 생각을 나타냄

- (2) 나의 생활 경험과 견주어 가면서 느낌과 생각을 쓴다.

하이드의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하이드처럼 순진한가? 하이드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기 일쑤인 나!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난 항상 변덕을 부리는 나의 성격을 이제부터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고쳐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 남을 잘 원망하는 부정적이고, 변덕을 잘 부리는 나의 성격에 견주어 느낌, 생각을 나타냄

길잡이

속담과 격언, 실제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나의 생활 경험을 내용과 견주어 써 보자.

글의 끝 부분

- (1) 느끼고 생각한 점을 종합
정리하여 나의 노력과 결심
그리고 다짐을 해 본다.

~ 이렇게 이 책에서는 그냥
듣고 흘러 버렸던 얘기들, 항상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밝혀 내었다. 나도 이제부터는
모든 사실에 의문을 갖고 조사
하고 알아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상상의 나라가 가득 펼쳐
진 이 책 속을 나는 동경할 것
이다, 영원토록!

- (2) 느끼고 생각한 점을 종합
정리하여 기대되는 일이나
더 하고 싶은 일을 쓴다.

~ 외국 여행이 그리 쉽게 이
루어지진 않겠지만, 나에게 기
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
낄 수 있는 여행을 해 보고 싶
다.

내가 ~ 어떻게 다른지 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
다려 본다.

~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를
보니, 나와 모든 내 또래의 친
구들이 노력하여 일본을 이기고
싶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역사
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 (3) 편지 형식에서는 부탁이나
격려를, 시의 형식에서는 주
제가 잘 나타나도록 쓴다.

~ 언제든지 용기와 꿈을 잃
지 않는 그런 승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승구 화이팅!

에밀레종은
긴긴 울음을
한없이 토해 낸다.

그 날을 기다리며
민족의 해방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제
부분

2. 독후감을 쓰는 형식

편지글 형식

나를 깨닫게 해 준 친구

-‘뉴턴’을 읽고 나서-

뉴턴에게

뉴턴 안녕! 난 ○○라고 해.
무엇을 읽어 볼까? 하는 생각
중에 널 읽게 됐어.

넌 어째 그런 작은 몸으로 태어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니? 너의 어머니는 가정이 어려워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셨는데, 넌 외롭지도 않니? 나라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 많이 울었을 텐데…….

난 가끔 과학에 대하여 생각할 때도 있지. 사과를 왜 떨어지는가? 사람은 왜 하늘을 날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지만, 너처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널 만나게 된 거야.

넌 명칭한 해바라기라는 별명

을 들으면서도 꾀꾀 잘 참아냈지. 나라면 주먹이 먼저 나갈 것 같은데 말이야 해해.

넌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 좋겠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보다 못할 걸! 우리 할머니의 나쁜 점 잘못된 점을 고쳐 주시거든. 난 그래서 너의 할머니보다 우리 할머니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참 훌륭해 넌, 어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사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끌려갔나? 그렇다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사과를 끌었다’하는 생각 말이야.

아~ 그리고 보니 우리 선생님께서도 작은 것부터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

뉴턴, 고마워! 작은 것도 잘 생각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뉴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

1997년 12월 1일

영원한 친구 ○○가

동시의 형식

대포 맛은?

-‘이순신’을 읽고-

바닷가의 거북이를 보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었지.

등 위엔 바늘이
배 옆에는 대포가

거북선 바늘에 찔린
왜군의 기분은 어떨까?
대포 맛은 어떨까?

연못 속의 개구리

아이들아!
개구리한테 돌맹이를 던지면
개구리가 죽어 가잖아.

아이들아!
너도
돌맹이로 맞으면 아프잖니?
불쌍한 개구리를 사랑해 주자.

청개구리

말 안 듣고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아들 때문에
돌아간 엄마 청개구리.

청개구리처럼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로 태어나
임금님 되셨네.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
우리 한글을 만드셨지,

읽고 쓰고
또 읽어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을.

1642년과 오늘

-‘갈릴레오’를 읽고-

1564년

피사에서 태어난 그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

그 맑고 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그 높고 높은 지혜로

1632년

‘지구는 돈다’라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갈릴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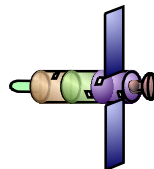
그는

1642년

안타까운 일생을 마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돌고 있다.



미래를 향하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진 않을 꺼야,
난.

지치고 쉬고 싶어도
끊임없이 질주할 꺼야,
난.

땀방울이 뽀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진 않을 꺼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지치고 쉬고 싶어도
끊임없이 질주할 꺼야,
난.

날개가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끝까지 날고 달릴 꺼야,
나의 미래를 향하여.

생활문 형식

참 이상하다

-‘효녀 심청’을 읽고-

나는 효녀 심청이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아버지를 보호해 줘서 효녀 심청은 힘들겠다.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다니, 참 이상하다. 내가 효녀 심청이라면 목숨은 안 바치겠는데…….

똥 묻은 개

-‘반쪽이’를 읽고-

반쪽이는 어렸을 때부터 반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들이 많이 놀렸다.

난 이 책을 읽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속담 하나가 생각났다. 바로 반쪽이를 놀리는 형 같았다.

난 반쪽이 보다 못난 사람이 있어도 놀리지 않겠다.

견우와 직녀의 사랑

-‘견우와 직녀’를 읽고-

“견우야, 안됐구나 직녀를 좋아했는데.”

“괜찮아, 칠 월 칠석에 만날 수 있어.”

“아…, 직녀가 보고 싶구나!”

“그래도 까치와 까마귀들이 떠받쳐 주잖아.”

나도 이제 보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멍청한 호랑이

-‘토끼와 호랑이’를 읽고-

“호랑아, 넌 돌이 떡이라 생각하니?”

“응 그래, 그런데 내가 돌을 떡으로 알고 먹은 게 아니야. 토끼란 놈이 나를 속인 것이지.”

“하지만 넌 불쌍해. 내가 꿈속에서 토끼를 혼내 줄게.”

나의 목욕 예절은?

-‘여탕에 간 남자 아이’를 읽고-

난 이 책을 읽고 내 목욕 예절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이 전개되자, 내가 목욕탕에 갔을 때 일이 생각난다. 소란스럽게 수영하는 아이들이 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목욕탕이 자꾸만 떠오른다.

‘나도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은 없을까?’

이 글을 읽으며 내가 목욕할 때의 행동과 우리 동네 목욕탕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책에 나온 나쁜 행동은 우리 동네 목욕탕 모습과 비슷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물은 주인 의식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과거의 나쁜 행동을 반성하고, 나부터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눈 팔지 맙시다

-‘구운몽’을 읽고-

어머니께서 선물 해 주신 구운몽은 김만중이 지은 소설이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내가 만화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만화로 된 구운몽을 선물해 주셨다.

주인공인 성진은 스님인 주제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여자 선녀들과 사귀며……. 스님은 불심이나 열심히 닦아야지. 정말 스님답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스님에게 술을 먹인 용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기준을 둔다면 50대 50이다. 용왕이 준다고 넓죽 받아 먹은 성진도 잘못, 스님에게 술을 준 용왕도 잘못이다.

그러나 난 용왕을 이해한다. 자기를 약올리고 달아난 성진 스님이 미웠을 테니까. 나라면 당장 명예 훼손 죄로 감옥에 잡아 넣었을 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상 세계에

와서 성진 스님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는 그 때가 제일 가슴이 두근거
 렸다.

난 이 책을 읽고 갈팡질팡 하
 지 말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백마처럼 달려야겠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심술궂은 옹고집

-‘옹고집전’을 읽고-

옹고집은 어머니께 불효라 어
 덜 가던 말썽만 피웠다.

나도 동생과 장난을 치다 유
 리창을 깨트렸는데, 나만 꾸짖
 고 동생은 나무라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이 생겨 동생을 때리고 괴롭혔
 다. 그러다가 난 어머니께 들켜
 혼이 났다.

그 이후로 동생은 나에게 미
 안하다고 했으며, 나도 뒤늦게
 사과를 했다.

이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잘 되지 않는다

광해군은 심술궂이

-‘광해군’을 읽고-

오늘은 오빠에게 선물 받은
 ‘계축일기’를 다 읽었다. 고아 광
 해군은 어쩌면 그렇게 심술궂을
 까? 이해할 수가 없다. 가희의
 말만 듣고, 어째 나라를 꾸려나
 갈 임금이 학문도 모르고…….
 ‘계축일기’에 나오는 광해군의
 약점을 집으려면 열 손가락도
 모자랄 것이다.

만약 내가 임금이 되어도 광
 해군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
 다. 좀 더 나은 방안을 대신들
 과 의논하여 할 것이다.

부끄럽지만 이 책을 읽기 전
 에는 광해군이 누구였는지 몰랐
 으며, 이렇게 심술궂은 지도 몰
 랐다.

하지만 이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광해군처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순신의 슬픔

(‘난중일기’를 읽고)

자신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한 이순신 장군은
정말 본받아야 할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

이 얼마나 감동적 말인가?

전사한 아들 면에게 죄는 자
신에게 있는 것이라며 통곡하는
이순신!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
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
구나’

이런 이순신의 마음에서도 얼
마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
는지 알 수 있었다. 난 정말 홀
륭하고 어진 아버지라고 생각한
다.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

이순신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가 내 가슴에 와 닿아 코끝이
찡했다. 책을 읽는 동안 어느

새 내 눈에는 언제부터인가 맑
은 도랑물이 방울방울 괴여 가
고 있었다.

감동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내 가슴 깊은 구석에 연듯빛 노
란 새싹이 되어 곱게 피어 가고
있다.

자식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한
이순신처럼 나를 길러 주신 우
리 부모님도 나를 귀여워 해 주
시고 사랑을 듬뿍 주신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
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라는 노랫말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 어찌 다 갚으리.....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은 부모
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계실 때
잘 해 드리고 효도를 해야겠다.

여태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
아리지 못해 걱정을 끼쳐 드렸
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
고 내 이익만 챙겨 왔었는데,
이순신의 마음을 읽으면서 생
긴 내 마음속의 새싹이 시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하게 자라려면 예의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친구들을 내 가족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 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본받아 이순신 장군 같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친구간의 우정

-‘기도하는 마음’을 읽고-

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친구간의 우정이 잘 나타나 있었다. 주인공은 뒤러와 나인이라는 아주 가난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화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주아주 가난해서 불가능했다.

그러나 뒤러와 나인은 열심히 일해서 한 사람이라도 꿈을 이루자고 서로 약속을 했다. 그 후, 나인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뒤러를 도

와 주게 되었다. 그래서 뒤러는 훌륭한 화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비록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기뻐하는 나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여기서 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으며, 친구가 잘 되길 항상 가슴 속에 묻어두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인이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슬프고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뒤러는 은혜를 갚기 위해 기도하는 나인의 손을 그렸다.

비록 자기의 꿈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겠다. 나인과 뒤러의 우정처럼 나도 친구를 위해 주고 사랑해 줘야겠다.



언제나 노력 늘 효도

-‘울지마 별이 뜨잖니’를 읽고-

영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놀림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나의 행동을 돌아보니,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는 나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다.

또 힘드신 어머니를 도와 가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난 어머니의 심부름도 짜증을 내며 했는데, 영아는 동생도 잘 돌보며, 어머니 일까지 도왔다고 한다. 이러한 영아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난 매우 부끄러웠다.

난 영아처럼은 하지 않더라도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겠다.



만화 한국역사 17편

-‘한국역사’를 읽고-

이 책은 우리 나라의 역사를 만화로 나타낸 책이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을 것 같아 읽게 되었다.

17편에서는 조선 말기 내용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같은 사건이 나와 있었다.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아주 자랑스러웠지만, 우리 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는 대목을 볼 땐 절로 이가 갈리고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하고,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일본인, 그들을 다 없애 버리고 싶었다.

17편을 읽고 나서, 난 우리 조상들의 애국심과 저항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고 느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정신이 되살아나면 우리 경제는 머지않아 회복 될 것이다.

깨달음의 시간

- '옹고집'을 읽고 -

친구에게 우연히 빌려서 보게 된 이 책은 내 체질과 비슷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난 성질이 급해서 글로만 되어 있는 책은 반도 못 읽고 지루해 딱 책으로 바꾸어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만화·소설로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게 끝까지 읽을 수가 있었다.

이 글에서 나오는 옹고집은 정말 나쁜 사람 같다.

시주하러 온 스님에게 돌팔매를 하지 않나, 구걸하러 온 거지의 바가지를 부수지 않나, 길을 가다가 옹고집이 지나가면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라 숨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난 이 책을 읽으며 지난 내 잘못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5학년 때였다. 그 때도 난 말썽꾸러기였다. 끝내 어머니는 형인 나만 나무라셨다. 그

때부터 난 동생을 증오했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난 동생이 하지도 않은 짓을 어머니께 고자질하고 동생을 많이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나를 심하게 나무라셨다. 난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 후 동생과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나,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학대사에 의해 깨우친 옹고집을 본받아 오늘 어머니와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니 속이 시원했다.

난 그 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솔직하고 용감한 내가 되어 이 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다.

진정한 친구

- '친구여 안녕'을 읽고 -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다. 이 책

은 가해가 권해서 읽게 되었다.

가해는 이 책을 읽으며 눈물까지 흘렀다며 나의 호기심을 더욱 돋구었다.

‘친구여 안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심경석이다. 또 나의 마음을 이끌게 한 것은 책의 제목이었다. 왜냐면 책의 제목이 왜 ‘친구여 안녕’일까? 라는 의문점도 생겼다. 이 의문점과 호기심을 달래 가며 차츰 읽어 나갔다.

이 책은 한 소년이 남기고 간 열 두 살의 아름답고도 아주 슬픈 이야기였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이 있다. 아무리 장난꾸러기라도 찾아보면 좋은 점은 누구나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공은 윤호라는 멋진 아이였다. 윤호는 어머니의 재혼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6학년 생활을 한다.

“윤호야, 힘을 내!”

윤호는 고아원에서 지내는 상일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 줄만큼 착한 아

이로 정말 본받고 싶다.

더구나 신문배달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이나 남에게 알리지 않고 배달을 했던 그런 봉사 정신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런 봉사 정신을 본받고 싶었다. 또 윤호가 너무 자랑스럽다.

송사리보다는 잉어가 되라는 최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나니, 장덕진 선생님이 생각났다.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장덕진 선생님…….

마지막에 상일이의 부모를 찾아 주고, 윤호의 어머니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윤호가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간암으로 쓰러졌다. 내 눈에서 눈물이 펴 돌았다. 그렇게도 착한 아이가 간암으로 쓰러지다니…….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 또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긴 채 윤호는 세상을 떠났다. 난 윤호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나도 윤호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윤호를 본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아니 꼭 할 것이다.

비록 윤호는 떠났지만,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리움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윤호처럼 친구들에게 추억을 남기고 진정한 친구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마지막 잎새’를 읽고-

‘마지막 잎새’ 이 책은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되었다. 오직 나무 한 그루의 잎에 고귀한 생명을 바쳐 주인공을 살린 화가 할아버지,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주인공일지도 모르겠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한 소녀 그리고 그의 옆엔 항상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소녀는 친구에게

“난 저 잎새가 떨어지는 날 죽을 꺼야.”

하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했다. 소녀의 친구는 왜 소년을 버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깊은 우정의 사다리가 둘 사이를 갈라 놓지 못한 것 같다.

그 친구는 소녀의 생각을 바꿔 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래층에 사시는 화가 할아버지가 찾아오시고, 그 할아버지는 소녀의 병을 고쳐 주겠다며 소녀 몰래 잎새를 그렸다.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소녀의 불치병에 전염되고 말았다. 소녀는 그 잎새를 보고 살았지만, 할아버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소녀의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 죽음이란 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녀 같이 한 그루의 볼 것 없는 나무에 생명을 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 같

왔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병을 얻으면서 까지 잎새를 그려 준 것은, 할아버지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녀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인 것 같았다. 그 소녀가 할아버지의 속뜻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겠다.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화가 할아버지만큼은 못하겠지만, 친구를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책은 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빛의 천사 헬렌켈러

- '헬렌켈러'를 읽고 -

이 책은 내가 읽고 싶어서 책

방에서 빌려 보았다.

이 헬렌켈러는 슬픔과 교훈을 나에게 안겨 주었다. 나는 헬렌켈러라는 책을 읽고 헬렌켈러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며, 귀까지 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켈러는 곳곳한 의지와 노력으로 참아 왔다. 헬렌켈러가 노력을 하고, 또 한 끝에 조금씩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귀도 조금씩은 들리고, 눈도 조금씩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헬렌켈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았다. 나는 헬렌켈러가 착하고, 참을성이 많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 장애인을 도와 주는 박사도 되었다. 나는 헬렌켈러가 매우 자랑스럽다. 장애인을 도와 주면서 박사까지 되었으니, 나도 헬렌켈러처럼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

람,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꾸뚝하게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
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헬렌켈러를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삼중불구자인 헬렌켈러가 복음
까지 한다는 사실은 나약한 나
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지금쯤이면 헬렌켈러는 하늘
나라에서 곤히 잠들고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헬렌켈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다.

빛의 천사라는 말이 잘 어울
리는 헬렌켈러!

나의 아름다운 미래

(‘불씨’를 읽고)

이 글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
었다.

주인공인 동수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나도 동수의 꿈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내 꿈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릴 때부터

였다.

동수는 죽을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 사는 날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요.”

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난 내가 만약 죽을병에 걸렸
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
고 싶은 것 다 할 것이다.

“진선아,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라.”

어머니께서 늘 잔소리처럼 하
시는 말씀이시다.

그 말의 뜻을 몰라 3학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렸는
데, 이젠 어느 정도 그 말의 뜻
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뜻
은 젊었을 때 못한 공부 늙어서
후회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글은 많은 것을 깨
닫게 해 주었다.

‘나에게도 가슴 속에 불씨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일이 기억난다.

나에게는 작은 불씨가 모이고
모여 큰 불씨로 활활 타오를 거
다.

혼은 살아 있다

